

## 5. 신라의 전통을 이어가다

조선시대 경주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신라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인식하였을까요? 1530년에 나라에서 편찬한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친 신라 문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경주 사람들의 주도로 『**동경잡기**』와 같은 역사 지리지가 잇달아 발간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경주 사람들은 신라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 정신을 잇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성덕대왕신종**을 여러 번 옮겨 설치하고 관리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울러 옛 신라 왕들을 위해 **사당**을 지었고, 나라에서도 이를 지원하였습니다. 오늘날 경주 시민들 역시 조선시대에 이어 경주의 뿌리가 신라임을 가슴깊이 새겨두고 있습니다.



◀ **옥척주부**  
조선시대  
길이 55cm, 47cm  
국립경주박물관

▶ **성덕대왕신종 聖德大王神鍾 鏡匙**  
조선시대  
길이 60cm  
국립경주박물관



▶ **경순왕 敬順王 영정**  
대한제국 1904년  
139.8×90cm  
국립경주박물관 보관  
(송혜전 기탁품)



## 6. 불교문화를 다시 일으키다

경주의 불교계는 조선시대에 들어 유교를 장려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려들은 불법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호국적(護國的)인 신앙**을 가지고 일본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전란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불교계는 희생자와 그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한편,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도 **사찰의 복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승려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참여, 특히 경주 부윤같은 관리들의 **후원**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경주의 사찰에 있는 상당수의 불교 문화재도 이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금강역사상승 金剛力士立像**  
조선 후기, 높이 100cm  
국립경주박물관

전시기간 2013년 9월 17일(화) - 2013년 11월 10일(일)

전시장소 특별전시관

관람시간 평일 9시~18시, 토요일 휴관

토요일 9시~21시

공휴일 9시~19시(입장은 관람 종료 시각 30분 전까지)

교통안내  
• 신경주역에서 700번 버스 탑승하여  
월지와 동궁(구 안압지) 앞 하차, 도보 3분  
• 고속버스터미널 / 경주역에서 11, 600~609번 이용하여  
박물관 앞 하차



780-150 경상북도 경주시 일성로 186

T. 054-740-7500 F. 054-740-7545 http://gyeongju.museum.go.kr

특별전시



# 조선시대의 경주

Gyeongju in the Joseon Period  
(1392-1910)



## 특별전을 열며

국립경주박물관은 경주의 조선시대를 조망하는 특별전 '조선시대의 경주'를 개최합니다. 전시품으로는 이 시기 경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 약 120건 180점이 선보입니다.

약 천 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고려의 수도가 중부 지역인 개경(개성)으로 옮겨가면서 지방 도시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한양(서울)이 수도가 되면서 경주는 신라 때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경주 사람들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수준높은 문화를 일구어 나갔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이와 같은 조선시대 경주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조선의 동쪽 서울, 경주', '경주에 살다', '학문과 사상이 꽃피다', '신라의 전통을 이어가다', '싸워서 나라를 지키다', '불교문화를 다시 일으키다' 등으로 꾸며집니다.

## 1. 조선의 동쪽 서울, 경주

조선 초기에 경주의 행정 명칭은 '경주부(慶州府)'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경주 사람들은 고려시대 이래로 경주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동경(東京)'이나 '동도(東都)'라는 말을 선호하며 더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동쪽의 서울'을 뜻하는 '동경'과 '동도'는 조선시대 경주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정치·경제·군사 등, 당시 국가적 차원에서 경주는 높은 위상과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직접 명령하여 그의 어진을 경주에 봉안한 것(오늘날의 **집경전(集慶殿)**)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동경관 東京館 (계시홍술) 현판**  
조선 1882년, 74×210×5cm  
국립경주박물관



## 2. 경주에 살다

조선시대의 경주는 지금의 경주시와 주변을 아우르는 큰 고을이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 평야가 펼쳐지고 동쪽은 바다를 접하여 물산이 풍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을 배경으로 경주에서는 향촌 세력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주의 양반들은 향촌 자치기구인 **유향소(遊鄕所)**를 세우고 향약(鄕約)을 실시하여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향약에도 편입되었지만, 두레와 같은 자생적인 농촌 공동체를 조직하여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경주 사람들은 북천(北川)의 홍수 방지를 위한 제방쌓기 등,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동도함음례 東都鄕飲禮**  
조선 1669년  
53×35.6cm  
인현시립박물관



**전대 殿碑**  
조선 후기, 86.5×47×26cm  
국립경주박물관



**당하제명기 堂下題名記**  
조선 후기, 91.5×49×18.5cm  
국립경주박물관

## 4. 싸워서 나라를 지키다

임진왜란(1592~1598년)은 조선시대 경주의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경주는 일본군의 북상 경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경주 사람들은 나라와 고향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특히 **의병**은 유격전술로 일본군을 막거나, 관군과 연합하여 **경주읍성을 탈환**하는 등, 큰 전공을 세웠습니다. 조정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정중히 예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정서는 새로운 성격의 향촌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극복하며 형성된 **우국충정**의 정신은 구한말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때 의병의 항쟁으로도 계승되었습니다.



**삼안총 三眼銃**  
조선 1593년, 길이 38.2cm  
국립경주박물관, 보물 제884호

## 3. 학문과 사상이 꽃피다



**이안적 李彦迪 글씨**  
조선 16세기, 30.5×21cm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는 신라 때 설총과 최치원같이 큰 학자를 배출하였던 전통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에는 **향교**와 **서원**을 세워 유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경주 출신의 화재 이언적(1491~1553)은 중국 성리학의 성과를 재해석하는 등, 독창적인 사상체계를 제시하여 **조선 성리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격변기였던 19세기에 경주는 대안적인 사상의 요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동학(東學)**을 창시한 수운 최재우(1824~1864)와 2대 교주 해월 최시형(1827~1898)은 모두 경주 출신이었습니다. 동학 운동의 흐름은 1894년의 전국적인 농민항쟁으로 이어졌고, 이는 동아시아 근대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경주 부윤 府尹의 투구와 갑옷**  
조선 후기, 높이 80cm(투구), 130cm(갑옷)  
국립경주박물관



**비각진천회 非閣鎗天雷**  
조선 1592년 경, 지름 20.9cm  
국립경주박물관